

韓·中·日 古典文學 속에 보이는 여성과 복수*

이경미**

<목 차>

1. 들어가며
2. 복수의 발단
3. 복수의 전개
4. 복수의 파국
5. 나오며

1. 들어가며

인류의 오랜 역사 속에서 ‘복수’의 이야기는 가장 많이 다루어진 이야기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만큼 ‘복수’의 감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원초적이고 또한 지극히 보편적인 감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복수심은 어느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문학의 주제이기도 하다. 특히,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사적(私的) 복수가 가공, 창작된 문학 작품 속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서 우리는 대리 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 고대 문학 속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유불교 문화에 뿌리 깊은 기반을 둔 가부장체제의 고대 동아시아 문학 작품 속 복수의 주체자들은 주로 남성들이었다. 그것은 전통적 가부장체제하에서 남성 문인들의 손에 의해 창조된 문학 작품 속의 ‘복수’라는 단어는 주로 남성들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불교의

* 이 논문은 2010학년도 동서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서대학교 중국어학과 부교수 (leejingmei@gdsu.dongseo.ac.kr)

영향을 깊게 받은 한중일 고전문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러나 일부 문학 작품에서는 여성들이 복수의 주체자가 되어 그 역할을 기꺼이 수행하고 있다. 이는 여성들의 공적인 활동을 철저히 규제하고 순종적인 면모를 강조했던 시대에 등장한 새로운 여성들의 모습이며 당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일종의 도전이며 또한 개성 해방의 표현이기도 하다. 또한 그녀들의 복수의 과정 중 드러나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신기에 가까운 무예는 다른 남성 복수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수의 주체가 여성이 되는 문학 작품들은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는 한중일 고전 문학 작품 속 여성이 복수의 주체가 되는 작품분석을 통하여 한중일 여성들이 복수를 결심하게 되는 동기와 복수의 전개 및 해결 방법, 그리고 복수 후 파국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慵齋叢話》·《雜記古談》，중국의 경우에는 《霍小玉傳》·《聊齋志異》 등을 주된 텍스트로 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今昔物語集》·《雨月物語》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위 작품들을 통하여 고대 동아시아 문학 속에 나타난 여성복수자들의 모습과 그 저변에 깔린 여성관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한중일 고전문학 속 여성들의 복수의 모티브를 효(孝)와 열(烈) 그리고 애증(愛憎)의 차원에서 고찰하고(2장), 그에 기초한 구체적인 복수의 전개 즉, 복수의 해결과정과 그 방법(3장)을 검토한 후, 복수 이후의 결말과 파국적인 종말(4장)을 살펴보려고 한다.

2. 복수의 발단

유교적 전통이 지배하던 고대 동아시아 삼국에 있어서 ‘사적(私的)인 복수’란 사회 규범적으로 금지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의 동기에 따라서는 때때로 칭송되기도 하는 등 이중적인 잣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학자 王立은 그의 논문 <從復仇文學主題看復仇動機的傳奇質素>에서 “복수의 모티브가 성립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불의의 도전’이 있음으로 해서 시작된다.”¹⁾라고 전제하면서 복수의 동기는 ‘불의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 잣대

는 문학의 세계에 투영되어 주인공이 ‘정의의 실현’이라는 피할 수 없는 동기를 가지고 현실적이거나 초현실적인 방법,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 그리고 당장 실현 가능한 것이거나 혹은 오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독자들은 자신들의 억눌린 정의감을 충족하여 왔다.

한중일 고전 문학 속에서 여성들이 복수의 주체로 등장하는 이례적인 상황 설정 속에서도 복수의 동기는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다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복수의 주체가 남성인 경우와 비교하여 복수의 동기의 범위가 주로 가정 내부와 개인의 감정에 국한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여성 복수의 윤리적 모티브가 효행(孝行)과 열녀(烈女)의 이미지와 연결될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반면, 복수의 모티브가 개인의 애증(愛憎)과 관련될 경우에는 다소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등 동기의 평가도 이중적일 수 밖에 없음을 엿볼 수 있다.

(1) 복수의 윤리적 모티브

유가의 “부모의 원수는 한 하늘 아래 살지 않고, 형제의 원수는 한 나라에 살지 않으며, 친족의 원수는 한 동네에 살지 않는다(父母之仇, 不同戴天; 兄弟之仇, 不同國; 九族之仇, 不同鄉黨).”²⁾라는 덕목이 예시하듯, 유교문화에 근간을 둔 한중일 고대 문학 작품 속에는 지극한 효(孝)를 완성하는 길로 부모의 원수를 갚는 여주인공들이 있다. 한편 효(孝)가 남녀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덕목이라면 열(烈)은 남녀관계에서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윤리규범이었다.³⁾ 가부장제의 유지를 위하여 제도적, 사회적으로 뒷받침된 열녀숭상 분위기는 많은 열녀들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복수의 동기가 이러한 효(孝)나 열(烈)에 연결될 경우에는 그 복수는 윤리적인 차원에서 칭송되는 측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를 필자는 금지된 복수가 일정한 조건하에서 윤리적인 성격을 띠게

1) 山西大學學報(哲史版), (2000.2), 27~30쪽.

2) 출전은 『春秋公羊傳』莊公四年의 疏.

3)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서울: 월인출판사, 2006), 14쪽.

되는 경우라고 보아 이를 ‘복수의 윤리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다만, 복수의 윤리성의 인정범위는 남성의 복수와 다소 차이가 있다. 남성이 부모와 자식에서 맺어지는 효(孝)에 집중하고 있었다면, 여성은 효(孝)와 열(烈)을 동시 또는 선택적으로 충족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는 특이점이 보이며, 나아가, 효(孝)의 측면에서도 남성의 효(孝)는 오로지 친부모와의 관계에 한정되는 것이었으나, 여성에게는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라는 새로운 효의 대상이 존재하게 되고 따라서 시부모에 대한 효 또한 복수의 윤리적 모티브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로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무거운 윤리적인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그에 기한 복수는 때때로는 다소 기형적인 형태로 표출되기도 한다.

1) 윤리적 모티브로서의 孝

조선 후기 야담집 임매의 《雜記古談》에 나오는 <원수 갚은 두 처녀>⁴⁾는 처녀 자매가 부친을 살해한 계모와 간부를 죽여 원수를 갚는 이야기다. 내용은 숙종 때 정시한에게 준수한 두 검객이 찾아 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둘은 쌍둥이 자매 사이로, 모친이 죽고 새로 들어온 계모가 이웃의 교생과 사통하여 아버지마저 독살하고 달아났다. 그 후 이웃집 아주머니의 젖을 얻어먹고 자라다 검술의 고수를 찾아 입산하여 검객이 된다. 자신들의 복수의 동기가 독살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이며 일평생 복수를 위해 바치기로 한다는 굳은 의지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저희들의 울분은 골수에 사무쳐 있습니다. 이미 죽기로 결심한 몸이고 일평생 부모의 원수만을 갚기로 작정했습니다.”⁵⁾

그리고 그날 밤, 인근 주막에 유숙하던 계모와 간부를 살해하고 목을

4) 정명기(편) 《雜記古談》3話, 《韓國野談資料集成》卷12(서울:계명출판사, 1987), 279~282쪽.

5) “吾辱之腐心痛骨，爲此萬死一生之計者，直爲父母之仇耳.” (위의 책)

가지고 바람처럼 사라진다. 작가 임매는 작품 마무리 부분에 그녀들의 복수를 단순한 남의 목숨을 뺏는 도적의 행위로 보지 말고 마땅히 응징할 대상으로 보고 그녀들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복수의 행위에 정당성을 두고 아래와 같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⁶⁾

“무릇 이와 같은 그들의 처사는 참으로 하늘의 이치와 백성의 도리 가운데 정도라고 할 만하다. 아! 그들을 도적으로만 치부할 수 있겠는가?”⁷⁾

조선 후기 성해응(成海應)의 《江上孝女傳》도 어린 자매가 남장을 하고 검술을 연마하여 결국 부모의 원수를 갚는 이야기다. 작가 성해응은 논찬을 통해 강상효녀들이 관에 고발하여 범집행을 하지 않고 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직접 부친의 원수를 갚을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유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강상효녀가 어찌 賊商을 관에 고발하여 국법으로 그를 죽여야 함을 몰랐겠는가. 그녀는 유사가 적상을 밝히지 못하여 자기의 원한을 풀 수 없을까 진실로 두려워하여 이에 손으로 직접 죽여 없앤 것이니 참으로 烈이라 하겠다.”⁸⁾

당시 범집행이라는 것이 유사가 외압에 굴하지 않고 범인을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 또 만약 잡았다고 하더라도 상부에서 죄상에 걸맞게 처벌할 수 있을지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아래 자식으로서 부모의 원수를 직접 처단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⁹⁾

또한 이러한 현상은 중국문학 속에서도 발견된다. 청초 포송령의 《

6) 이원걸, <잡기고담에 반영된 임매의 여성관>, 《한문학보》14(우리한문학회, 2006), 336~339쪽.

7) “夫若此者, 真可謂得天, 理民之正. 嗚呼! 可以盜也哉.” 정명기(편), 《雜記古談》3話, 《韓國野談資料集成》卷12(서울:계명출판사, 1987).

8) “江上孝女, 豈不知告賊商于官, 以王法誅之哉! 彼誠恐有司不能明其賊, 而已之冤不得伸, 乃手自剪除之, 誠烈矣哉!” 성해응, 《研經齋全集》권17, 「江上孝女傳」, 서울: 한국문집총간, 2007.

9) 손혜리, <성해응의 글쓰기 양상과 그 의미>, 《한문학보》15(2007), 389쪽.

聊齋志異·商三官》편의 상삼관은 작가가 중국역사상 최고의 자객이었던 豫讓¹⁰⁾, 荊軻¹¹⁾와 비교하여 높이 칭송하였고 심지어 삼국시대의 관우에까지 비교하기에 이른 복수의 여주인공이다. 17, 8세의 연약한 소녀 상삼관은 아버지가 토호의 비위를 거슬러 몰매를 맞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맞게 된다. 또한 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약혼자가 혼인을 서두르자 “아버님의 시신이 아직 식기도 전에 혼인을 하다니요? 그대들은 부모도 없답니까?”라며 혼인을 보류한다. 그리고 두 오빠들에게 관부의 도움을 기대하지 말기를 당부하며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고 나서는 홀로 복수의 길로 나선다. 그리고 원수의 생일 연회에 남장배우로 나타나 웃음과 교태로 상대의 경계심을 풀게 한 뒤 침착하게 복수를 완성한다. 작품 말미에 포송령은 아래와 같이 그녀의 복수행위를 칭송하고 있다.

“집안에 여자 예양(豫讓)이 있는 줄도 몰랐다니 두 오라비가 어떤 사내였는지 알만도 하다. 하지만 삼관의 인품은 길게 노래를 읊조리며 쓸쓸히 역수(易水)를 건너간 형가(荊軻)에 비겨도 무방할 것이다. 강물도 그녀에게는 부끄러워 더 이상 흐르려 들지 않을 판인데, 명청하게 세속을 따라 부침하는 저 무능한 인간들임에랴! 원컨대 온 천하의 여자들이 색실을 사 삼관의 초상을 수놓아 받들게 한다면, 그 공덕은 필시 관우를 모시는 것에 덜하지 않을 것이다.”¹²⁾

상삼관을 관우와 비교한 것은 그녀를 여자 중의 관제 즉 용기와 의리의 화신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들은 당시의 가부장사회로서는 아주 드문 평가로 그녀의 복수 행위의 동기가 효(孝)에 기초하고 있기에 가능한 평가가 아닌가 한다.

10) 진나라 사람으로 그의 주군 지백이 양자에게 죽임을 당하자 복수를 결심하였으나 실패하자 옷으로 몸을 칠하고 솟을 삼켜 문둥이와 병어리로 변해 다시 복수의 기회를 노리나 또 다시 실패하자 자결한다.

11) 태자단이 진시황을 죽이려고 보낸 자객으로 실패하고 죽음을 맞는다.

12) 異史氏曰：“家有女豫讓而不知，則兄之爲丈夫者可知矣。然三官之爲人，即蕭蕭易水，亦將羞而不流，況碌碌與世浮沉者耶！願天下閨中人，買絲繡之，其功德當不減於奉壯繆也。” 김혜경(역), 《요재지이·상삼관》(서울:민음사, 2002).

2) 윤리적 모티브로서의 烈

신라 김부식의 《三國遺事》권45의 석우노는 신라 내해왕(奈解王) 아들로 대장군이 되어 많은 전공을 세웠다. 일본 사신이 왔을 때 접대 중 한 농담이 화근이 되어 일본 왕이 신라를 공격하자 석우노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왜장은 곧 석우노를 잡아 불태워 죽여 버린다. 후에 다시 일본 사신이 왔을 때 그의 아내가 일본 사신을 개인적으로 접대하겠다고 하여 초청해 술을 많이 먹여 취하게 하고는, 장사들을 시켜 끌어내 뜰에서 불살라 죽여, 남편 원수를 갚는다.

석우노 처의 복수의 동기는 죽음을 당한 남편의 원한이고, 동시에 국가의 대신이 죽임을 당한 손상된 국가의 체면에 대한 원한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녀의 복수의 방법이 집으로 초대하는 등 지극히 사적인 방법임을 볼 때 그녀의 복수의 동기는 남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부식이 그녀의 행동을 '變而非情'이라 하여 다소 과격한 행동으로 보고 있으나, 복수 후 20여년 후에 제16대 신라 왕으로 즉위한 견해왕이 석우노의 아들인 점을 보면 석우노 처의 행위는 남편의 원수를 갚는 열(烈)의 행위로 보았기에 당시의 신라 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 같다.¹³⁾

중국 당전기 《謝小娥傳》의 사소아도 남편, 그리고 시댁식구들까지 모두 도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물 등을 약탈당한다. 그러나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도움으로 자신의 가족들을 해한 도적의 이름을 알아내고 그때부터 복수의 계획을 세운다. 남자로 변장하여 도적 신란의 집에 남장하인으로 들어가 오랜 세월동안 복수의 기회를 노리다 방심한 틈을 타서 복수에 성공한다. 작가 이공좌는 이야기 말미에 아래와 같이 그녀가 남편의 원수를 갚고 정절을 보존한 것이 천하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극찬하고 있다.

“굳은 맹세 변하지 않고 시아버지와 남편의 원수를 갚은 행위는 절개요. 남의 집 일꾼으로 잡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여자인 줄 몰랐으니 이는 정절이로다. 여자의 행실이란 오직 정(貞)과 절(節)은 시종일관

13) 편집부 편, 《한국역사 속의 여성인물》(서울:한국여성개발원, 1998), 85쪽.

온전하게 지키는 것일 따름이라. 소아(小娥)같은 여인은 죽히 천하의 도리를 거슬리고 윤리를 어지럽히는 자에게 깨우침이 될 만하고, 충분히 천하의 정부(貞婦)와 효부(孝婦)의 절개를 이에서 본다고 하겠노라.”¹⁴⁾

《三國演義》제38회 <定三分隆中決策 戰長江孫氏報讎>(용중에서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 결책을 내고, 장강에서 싸워 손씨가 원수를 갚다) 편에서는 손익(孫翊)의 아내 서씨(徐氏)가 미인계로 암살당한 남편의 복수를 한다. 원수 규람(嬌覽)과 대원(戴員)이 손익의 시첩(侍妾)과 가산(家産)을 몰수하고 자신까지 차지하려고 하자 “남편이 죽은 마당에 가릴 것도 없지만 남편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안심시킨 후, 은근히 유혹하며 독한 술을 권하여 취하였을 때 다른 장수를 불러 죽이도록 한다. 서씨는 복수를 마치고 원수의 수급을 남편 영전에 제물로 바쳤다. 이야기 끝에는 저자가 아래와 같이 그녀의 용기를 기리는 시를 지어 그녀의 복수의 행위를 칭송하고 하고 있다.

“재주와 절개 모두 갖추은 세상에 드문데 간악한 무리가 하루아침에 제거되는구나. 용신은 도적을 따르고 충신은 죽을 뿐이니 살아서 복수한 동오의 여장부만 못하구나!”¹⁵⁾

청초 문언단편소설집 포송령의 《聊齋志異·庚娘》의 경량도 남편과 시댁식구가 억울한 죽음을 맞았으나 침착하고 냉정한 태도로 원수에게 결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응하여 그를 술에 취하게 하여 죽인다. 작가 포송령은 남성 영웅들과 비교하며 그녀의 복수 행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庚娘같은 사람은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조요하게 미소 짓고 있다가 몸소 원수를 찔러 죽였다. 천고 이래 위대하다는 사내들 중에 경량만

14) “誓志不捨，復父夫之仇，節也；備保難處，不知女人，貞也。女子之行，唯貞與節，能終始全之而已，如小娥，足以儆天下逆道亂常之心，足以觀天下貞夫孝婦之節。” 김중균(편역), 《중국전기소설선》(서울:박이정, 2005).

15) “才節雙全世所無，茲回一旦受摧鋤。庸臣從賊忠臣死，不及東吳女丈夫。” 연변대학번역조(역), 《삼국지》(중국:연변대학출판사, 1990).

한 이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 누가 여자는 뛰어난 영웅들에 비겨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으랴?”¹⁶⁾

그리고 그녀의 용기에 탄복한 하늘이 실수로 산채로 매장된 그녀를 도굴꾼에게 훼손될 위기에서 구함으로 하늘도 감동한 열부(烈婦)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행하는 ‘孝’를 바탕으로 하는 복수행위나 남편을 향한 ‘烈’로서 행한 복수행위에는 한·중 양국의 고대문학작품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칭송하고 있으며 또한 거기에는 남녀간의 차별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유교문화가 지배적이었던 동아시아의 고전문학 세계에서 효(孝)와 열(烈)이라는 윤리적 모티브는 복수의 동기로서 높이 칭송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는 다음에서 살펴볼 복수의 정념적 모티브에 대한 문학속의 평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복수의 정념적 모티브

사랑에 대한 기대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며 누구나 행복한 결혼을 꿈꾼다. 더욱이 목숨을 거는 용기로 시작한 사랑과 인내하며 기다렸던 사랑에의 기대는 더욱 컸을 것이다. 고대 한중일문학 작품 속 여성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간절한 사랑만큼 그 진심이 짓밟혔을 때는 지독한 증오로 변하고 처절한 복수를 감행한다.

조선시대 성현의 《慵齋叢話》제4권에 실려 있는 〈홍재추와 여승〉은 버림받은 여승이 죽고 난 후 뱀으로 변하여 복수하는 이야기다. 내용은 홍재추가 산길을 가다가 소나기를 만나 암자로 피하다 그곳에서 젊은 여승을 만나게 되고 하룻밤 사랑을 나누게 된다. 홍재추는 여승에게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길을 떠났으나 약속한 날짜에 홍재추가 오지 않자 여승은 병이 들어 죽는다. 후에 여승의 원혼은 뱀의 모습

16) “至如談笑不驚，手刃仇讎，千古烈丈夫中豈多匹儔哉！誰謂女子，遂不可比踪彥云也？” 김혜경(역), 《요재지이·경량》(서울:민음사, 2002).

으로 그를 찾아오고 죽일 때마다 몸집이 커지더니 마침내 커다란 구렁이가 된다. 죽은 여승이 구렁이로 변이(變異)된 것을 알고는 그 구렁이를 함 속에 넣어 자기 방안에 두고 또한 순행을 나갈 때에도 동반한다. 이후 홍채주는 정신이 점점 쇠약해지고 얼굴빛이 파리해진다. 결국 그녀의 원혼은 그를 서서히 죽게 만든다.¹⁷⁾

중국 당전기 《霍小玉傳》에서 李益은 진사과거에 급제하고 대과 급제를 위해 상경하여, 광왕의 총비에게서 난 딸 소옥과 인연을 맺는다. 그러나 소옥이 비첩의 소생이라는 천한 신분 때문에 그녀를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 李益이 다른 여자를 취하자 그녀는 죽음 직전에 피를 토하며 저주를 한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 박명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고 그대는 대장부이기에 배반하는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중략) 내 죽은 뒤에 반드시 모진 원귀가 되어 그대의 처첩들을 하루 종일 편치 못하게 할 것입니다”¹⁸⁾

그리고 그녀의 무시무시한 복수가 시작된다. 소옥은 죽어서 원귀가 되어 이익의 결혼생활을 온통 질투와 의처증으로 물들이고 결국 파탄으로 이끈다.

《聊齋志異·寶氏》의 두씨의 딸도 믿었던 사랑에 배신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후 원귀가 되어 복수를 한다. 그녀가 출산한 아이를 안고 남산복을 찾아가지만 문전박대당하고 아이와 같이 얼어 죽는다. 이후로 그녀의 무서운 복수가 시작된다, 먼저 남산복의 새색시가 자결하게 하고 두 번째 얻은 색시마저도 역시 자결하게 만들고 게다가 그녀의 시체를 다른 관리의 딸의 시체와 바꿔치기 한다. 결국 그는 남의 무덤을 파헤친 죄로 관부의 사형을 받고 죽음으로 《聊齋志異》 속에서도 가장 음산하고 잔인한 복수가 완성된다.¹⁹⁾ 작자는 작품말미에 배반자 남산복을 광소옥전의 배신자 李益 즉 이십랑(李十郎)과 비교하며 여성들의 복

17) 성현, 《용재총화》(서울:술출판사, 1997).

18) “我為女子，薄命如斯！君是丈夫負心若此！……我死之後，必為厲鬼，使君妻妾，終日不安！” 김중균(편역), 《중국전기소설선》(서울:박이정, 2005).

19) 安国梁, 《聊齋釋真》, (中國: 中州古籍出版社, 1993), 142쪽.

수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고 있다.

“애당초 상대방을 꼬여 사통했다면 나중에 결혼을 하더라도 부도덕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법인데, 하물며 하늘의 해를 두고 맹세까지 했다가 훗날 의리를 저버린 것이야 말해 무엇하리? 남산복은 매 맞는 두씨의 딸을 모른 채 했으며, 그녀가 자기 집 문전에서 통곡해도 내버려 두었으니 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행실인가! 결국 그가 이십량보다 더 참혹한 벌을 받은 것도 참으로 당연한 노릇이다.”²⁰⁾

두씨딸의 복수는 기본적으로는 남녀간의 사랑의 배신성에 기초한 정념적 동기로 시작되었으나, 부차적인 복수의 동기 중에는 자신의 골육마저 죽음에 방치하는 냉혹한 남자에 대한 응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기에 순수한 정념적 동기에 의한 복수에 비하여 유교적 가치를 지향하는 동기가 첨가됨으로써 복수에 대한 평가가 보다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 작품은 이러한 정념과 윤리의 혼합적인 복수동기를 미묘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돋보인다고 판단된다.

일본 《今昔物語集》제14권 3화 도성사(道成寺)설화의 원류가 된 이야기 <기이지방(紀伊國) 도성사(道成寺)의 승려가 법화경을 서사공양(書寫供養)하여 뱀을 구제한 이야기>도 여인이 남자에 대한 집착과 원망이 여자를 뱀으로 변화하게 하여 남자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다. 내용은 늙은 승려와 젊고 잘생긴 승려가 함께 참배 하는 중에 젊은 미망인의 집에 묵게 된다. 미망인이 그를 연모하여 잠자리에 몰래 들어와 유혹하자 참배 후에 만나자며 거짓 약속을 하고는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자 집을 피해간다. 후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비탄에 빠져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그녀의 원혼은 분노의 불길을 뿜는 뱀으로 변신해 강을 건너 쫓아오고 도성사의 종 속으로 몸을 감춘 중을 완전히 태워 버리고 재만 남게 한다.

上田秋成 (우에다 아키나리)의 《雨月物語》(우게쓰 모노가타리)에 수록된 <吉備津の釜>(기비쓰의 솥)은 여성이 사랑과 믿음에 배신당하자

20) “始亂之而終成之，非德也，況誓於初而絕於後乎？撻於室，聽之；哭於門，仍聽之：抑何其忍！而所以報之者，亦比李十郎慘矣而所以報之者，亦比李十郎慘矣！” 김혜경(역), 《요재지이·두씨》(서울:민음사, 2002).

무서운 복수의 집념에 불타는 무시무시한 怨靈으로 변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내어 《雨月物語》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포와 음산한 분위기로 일본 괴담 문학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일컬어지고 있다.²¹⁾ 이소라는 불길한 결혼의 점괘를 무시하고 방탕한 남편 쇼타로와 결혼한다.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바람을 피우다 결국 기녀 소테와 함께 그녀를 속이고 도망가고 만다. 남편의 배신에 가슴아파하던 그녀는 시름시름 앓다가 원령(怨靈)이 되어 기녀를 발작 증세로 죽이고 이어서 남편 쇼타로에게 복수한다. 마지막 장면에 벽에 홍건한 핏자국과 천장에 남자의 상투 부분만 남김으로 처절한 죽음으로 복수를 완성함을 암시하고 있다.²²⁾

윤리적 모티브가 아닌 애증(愛憎)이 복수의 동기인 위의 작품들에서는 원래의 결혼 약속을 어긴 무정한 사내 혹은 변심하는 남편에 대하여 원령(怨靈)이 되어 복수하는 여성들을 동정하고 있다.²³⁾ 그러나 여성들이 살아서가 아닌 죽어서 원혼이나 뱀 등으로 변신한 후 복수를 감행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효(孝)나 열(烈)에 기한 복수보다 애증(愛憎)에 기한 복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식을 간접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 가부장체제에서 처첩제등으로 여성이 남성의 사유물로 취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간의 애증(愛憎)을 기반으로 하는 복수의 동기는 사회 전반적인 공감을 얻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의 복수가 아닌 죽어서 사후 이류(異類)로 변이한 후에야 복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즉 인간이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닌 이류(異類)에 의한 복수를 허용함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체제를 흔들지 않고 여성들의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우회복수를 만들어 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복수의 전개

전통사회에서 여성들에게는 제한된 교육의 기회와 사회 참여의 부족

21) 中寸幸彦, 《日本古典文学大系56・上田秋成集》(日本:岩波書店, 1959), 13~14쪽.

22) 이한창, 《우게쓰 이야기》(서울:문학과 지성사, 2008), 113~132쪽.

23) 김혜경, <요재지이의 가정윤리>, 《중국소설논총》6(1997), 158쪽.

으로 여성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지극히 한정적이었다. 더구나 “여성은 재능이 없는 것이 德이다.”라는 논리로 여성의 재능에 대한 경시와 억압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었다. 그러나 복수를 주제로 한 문학 작품 속에서는 외형적으로는 연약한 여성들이 현실세계와 사후(死後) 초현실세계를 넘나들면서 남자를 능가하는 내적인 역량(知德)과 외적인 역량(才藝), 그리고 초현실적인 힘(神異)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1) 내적인 역량(知德)

조선후기 안석경(安錫敬)의 《삽교만록(雪橋漫錄)》에 수록된 한문단편소설 《劍女》의 주인공 아씨와 여종은 멸문지화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남장을 하고 복수를 도와 줄 수 있는 검객을 찾아 무공을 익히고 또한 보검을 마련하는 등으로 주도면밀하게 복수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9살 때의 원수를 기억해내기란 쉽지 않은 이유로 검무를 추면서 일일이 원수의 집을 찾아다니는 기지를 발휘하기도 한다. 그리고 결국 원수의 집을 찾아내어 아래와 같이 단번에 복수를 완성한다.

“아가씨는 열 살을 갓 넘자 남장을 하고 저와 함께 멀리 떠나 검객을 찾아 나섰습니다. 두 해가 지나서야 검객을 만나 검술을 배웠고, 다섯 해가 되자 마침내 공중을 날아서 다닐 수 있었지요. 큰 도회지에서 이 재주로 수천 금을 벌어서 보검 녀 자루를 샀답니다. 그리고 원수의 집으로 가서 재주를 파는 사람인 양 들어가 달빛을 타고 칼을 휘둘렀지요. 24)

조선 후기 야담집 임매의 《雜記古談》에 수록된 〈원수 갚은 두 처녀〉에서도 정시한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두 처녀의 애절한 사연을 듣고는 복수를 위하여 자신의 종 가운데 장대한 사람 둘을 붙여 주려고 하나. 그녀들은 “만약 일이 잘못되면 저희 둘만 죽으면 되지, 어

24) “娘子纔踰十歲，而與賤身謀爲男裝，而遠遊求劍師，經二年始得之，學舞劍，五年始能飛空往來，鬻技於名都會，得累千金，以買四寶劍。乃之讐家，爲將鬻技者，而乘月舞之。” 이우성의(편역), 《이조한문단편집·劍女》(서울:일조각, 1996).

찌 남을 끌어들이 수 있겠습니까”라며 단호히 거절한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손으로 원수를 응징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더불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배려하는 모습이 보인다. 복수 후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없게 목을 베어간 것 또한 그녀들의 주도면밀함을 잘 보여 주고 있다.

唐傳奇 《謝小娥》의 사소아도 아버지와 남편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남장을 하고 도적 신춘, 신란의 집으로 들어가 집안일을 돌보며 신임을 얻는다. 그 기다림의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복수의 일념으로 울분을 참아 냈다.

소아는 울분을 참고 억지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비위를 잘 맞추었다. 그러니까 신란은 소아를 곁에 두고 매우 좋아하면서, 금과 비단 등 물건의 출입숫자를 계산하는 일을 모두 소아에게 맡겼다.²⁵⁾

사소아는 2년 동안 남장을 하며 원수로 하여금 경계를 풀게 한다. 그리고 천천히 때를 기다리다가 기회가 오자 단번에 복수를 완성한다.

《삼국지연의》 38회의 손익(孫翊)의 아내 서씨(徐氏)도 남편을 암살한 원수들이 자신마저 차지하려고 하자 미인계(美人計)로 유혹하여 단번에 처단한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서씨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병사들을 모아서 배신자 변홍을 잡는다. 작품은 그녀가 침착하고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당하며 뛰어난 수습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원수들이 가산과 시첩은 물론 자신까지 노리자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 차마 바로 따를 수 없소. 제사를 올려 상복을 벗은 뒤 성친 결혼해도 늦지 않소.”라며 응하는 척 한다. 그리고 제사가 끝난 다음 목욕을 하고 진한 화장으로 치장하며 즐거워하는 기색을 보여 의심을 품지 못하고 방심한 틈을 이용해 남편의 복수를 완성하고 자신도 위기에서 벗어난다.

포송령의 《聊齋志異·商三官》의 상삼관도 아버지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자 결혼을 미루고 홀로 복수의 길을 떠난다. 먼저 원수를 가까이

25) 娥心憤貌順，在蘭左右，甚見親愛。金帛出入之數，無不委娥。 김중군(편역), 《중국전기소설선》(서울:박이정, 2005).

할 수 있는 방법을 신중히 모색한다. 결국 남장을 하고 극단에 들어가 원수의 생일 연회에 나타난다. 웃음과 교태로 상대의 경계심을 풀게 한 뒤 복수를 감행한다.

이옥(상삼관)은 주인을 대신하여 잠자리를 정돈하고 그의 신발을 벗기면서 빠짐없이 시중을 들었다. 주인이 음란한 언사로 희롱해도 그는 단지 빙그레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주인이 그에게 홀딱 반했으므로 다른 하인은 내 보내고 이옥만 자리에 남겼다. 하인들이 모두 물러가자 이옥은 방문을 잠그고 빗장을 채웠다.²⁶⁾

상삼관은 결혼이라는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포기하고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남장을 하고 참기 어려운 수치심을 참으며 원수가 경계를 푼 틈에 단칼로 복수를 성공시킨다.

일본 무로마치 말기 작가 미상의 御伽草子(오토기조시) 《あきみち》(아키미치)²⁷⁾는 무사의 아내인 관계로 복수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아카미치 아내의 이야기다. 그녀는 도적에게 죽임을 당한 아버지의 복수를 하려는 남편의 설득에 못 이겨 시아버지를 위한 복수의 길로 접어든다. 그녀는 정절을 포기하고 유녀로 변장하여 홀로 적지에 숨어든다. 결국 원수 가네야마를 유혹하고 그의 아이를 가짐으로 그의 신임을 얻는 주도면밀함을 보여 주고 있다. 명망 있는 무사 가문의 며느리가 유녀로 변장하는 굴욕을 참고 자신의 정절과 행복을 희생하며 혈혈단신으로 원수의 집안에 들어가 남자들도 이루기 어려운 복수를 지혜와 용기로 완성한다.

그녀들에게 만약 복수의 동기가 되는 비극이 없었더라면 모두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 받는 평범한 여자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들은 비극적 고통의 환경에 처함으로 비로소 내부에 잠재해 있던 비범함을 드러낸다. 동아시아 고대문학 속에 나타난 일반적인 여성상과는 사뭇 다르게 복수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비로소 내면

26) 玉代豪拂榻解履，殷勤周至。醉語狎之，但有展笑，豪惑益甚。盡遣諸僕去，獨留玉。玉伺諸僕去，闔扉下鍵焉。 김혜경(역), 《요재지이·상삼관》(서울:민음사, 2002).

27) 西沢正二(編著), 《名篇御伽草子》(日本:笠間書店, 1978), 131~136쪽.

의 강인함을 드러내는 여성의 모습에 대한 서술은 당시 억눌린 여성의 잠재력에 대한 왜곡된 표출과 그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2) 외적인 역량(才藝)

여성들의 복수의 전개과정에서는 내적인 역량의 현출만이 주된 내용은 아니었다. 아래에서는 여성들의 외적인 역량, 특히 뛰어난 무예실력의 발휘를 보게 된다.

조선 후기 한문소설 《검녀(劍女)》의 아가씨와 여종은 복수를 위해 남장을 하고 2년을 고수를 찾아 다녔으며 고수를 찾은 뒤로는 5년 동안 무예를 연마한다. 그리고 그 무예로 돈을 벌어 복수에 필요한 보검 4자루를 손에 넣는다. 그리고 그녀들의 신기에 가까운 검술 실력은 복수의 날 밤 아래와 같이 묘사된다.

달빛을 타고 칼을 휘둘러 칼날이 이르는 곳에 떨어진 머리가 수십이 되었고, 원수의 집 안 팍 식구 모두 붉은 피를 쏟으며 쓰러졌으며 그리고서 자신들은 날고 춤추며 돌아왔다고 한다.²⁸⁾

그리고 신기(神奇)에 가까운 검법과 무공은 검녀가 소옹천을 떠나며 이별의 예로 한 쌍의 연화검을 가지고 추는 검무에서 아주 낭만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뿐히 움직이는 것이 물 찬 제비 같더니 별안간 공중으로 칼이 날자 몸이 따라 치솟아 칼을 옆구리에 끼었다. 처음에는 사방으로 흩어져 꽃잎이 지며 얼음이 부서지고, 중간에는 둥글게 모여서 눈이 녹고 번개가 번쩍이더니 끝에는 훨훨 비상하여 고니처럼 높이 오르고 학처럼 날아서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칼을 볼 수 있으랴! 다만 한 가지 하얀 빛이 동쪽을 치고 서쪽에 부딪히며, 남쪽에서 번뜩이고 북쪽에서 번뜩하여 휘익 바람이 나고 싸늘한 빛이 하늘에 서리었다. 이윽고 부르짖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획 하고 뜰에 선 나무가 베어지더니 칼이 던져지고 사람이 우뚝 섰다. 나머지 빛과 못 다한 기운이 차갑게 사람

28) “而乘月舞之，飛劍所割，頃刻數十頭，而讐家內外皆已赫然血斃矣，遂飛舞回來。” 이우성외(편역), 《이조한문단편집·劍女》(서울:일조각, 1996).

을 싸고돌았다.²⁹⁾

중국 《聊齋志異·俠女》편의 여주인공 협녀 또한 무예에 출중하다. 顧生의 동성에 대상이었던 소년이 백여우라는 것을 알고 협녀는 뛰어난 무공으로 소년의 정체(백여우)를 밝힌다. 그리고 얼마 뒤에 顧生에게 아들을 안겨주고 원수의 목을 베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떠난다.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며 또한 예지능력이 있어 顧生은 오래 살지 못하고 훗날 그들의 아들이 가문을 빛낼 것을 예언한다.

“당신은 박복한 데다 수명도 길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가 당신 가문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중략) 顧生이 쓰러린 심정으로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려는 순간, 아가씨는 번개처럼 몸을 돌려 눈 깜짝할 새 사라져버렸다.³⁰⁾

심지어 복수의 방식도 원수의 머리를 가죽 주머니에 담아가는³¹⁾ 등으로 신기에 가까운 무예로 복수를 완성한다.

여성복수의 외적역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여성복수자들이 검(劍)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 복수자들이 검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신체적 조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무술과 관련된 서사가 낭만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³²⁾ 검은 체력적으로 남성에게 뒤지는 여성 복수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무기였기도 하기 때문이다. 여성과 검은 현실세계에서는 ‘은장도’(銀粧刀)로 상징되는 정절수호차원에 머무르지만, 위의 작품 속에서는 복수의 ‘장도’(長刀)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리 잘 어울리지 않는 상관개념이 복수라는 이례적인

29) “然若輕燕，而暫然騰劍，竦身挾之，始也四撒，花零冰碎，中焉團結，雪滾電鑠，末乃翱翔鵠與鶴翥，既不可見人，而亦無由見劍。祇見一段白光，撞東觸西，閃南掣北，而颯颯生風，寒色凍天。俄叫一聲，砉然割庭柯，而劍擲人立，餘光剩氣，冷遍於人。” 위의 책.

30) “君福薄無壽，此兒可光門閭。……方淒然欲詢所之，女一閃如電，暫爾間遂不復見。” 김혜경(역), 《요재지이·협녀》(서울:민음사, 2002).

31) 이러한 복수방식은 다른 唐傳奇 《虬髯客傳》에서도 나타났다.

32) 량서우쥔, 《강호를 건너 무협의 숲을 거닐다》(서울: 김영사, 2004), 321 쪽.

무대 위에서 주목을 받는다는 점이 특이할만한 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한이 내적·외적역량으로 해소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그러한 복수의 정념은 극단적으로 현실세계를 넘어 초현실세계로 그 에너지를 분출하게 된다.

(3) 초현실적인 역량(神異)

전통적 가부장체제하에서의 여성들은 현실세계에서는 그들의 고통을 호소할 데가 없었던 데 반해, 혼령이 되면 비로소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죽음 속에서 희망을 찾곤 했었다. 이 유형의 여성 복수자들은 사랑의 배신으로 인하여 죽은 원령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녀들의 복수는 이미 현실의 벽을 넘었기에 결코 용서와 화해를 구하지 않으며, 가해자와 사생결단 의지를 강하게 보여준다. 자신이 현세에 받았던 고통을 고스란히 안겨 주고 심지어 복수욕도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³³⁾ 봉건적인 제도와 규율의 억압 속에 가려져 있던 본연의 질투와 원망의 모습들이 죽음 이후 이전의 자신을 오히려 매었던 모든 굴레에서 해방된 후 이전에 중시 여겼던 도덕적 가치를 단번에 무시하고 초자연적인 신이(神異)의 힘으로 무시무시한 복수를 감행한다.³⁴⁾

조선시대 성현의 《慵齋叢話》에 나오는 〈홍재추와 여승〉에서는 의지할 곳 없는 불쌍한 여승이 자신을 데리러 온다고 믿었던 남자를 한없이 기다리다가 지쳐 죽는다. 그리고 그녀의冤魂은 추악한 뱀으로 變異되어 남자를 찾아온다. 먼저 작은 도마뱀의 모습에서 시작하여서 매번 찾아 올 때마다 몸집이 점점 커지다 결국에는 거대한 구렁이의 모습으로 찾아온다. 군졸들이 찍어버리고, 장작불에 집어 던져도 죽지 않고 결국 홍재추를 정신이 혼미해지고 수척해지며 죽게 한다. 자신의 존재를 거부할수록 증가하는 분노는 작은 도마뱀에서 흉측하고 거대한 구렁이의 모습으로 점점 더 추하게 변하는 모습으로 대변한다. 여성의 애증에

33) 김명구·윤애선, <복수의 전환과 다원화>, 《중국어문논총》35(2007), 220쪽.

34) 줄고, <고전 문학 속 여성들의 해원으로서의 변이에 관하여>, 《석당논총》43(2009.3), 138쪽.

기인한 원혼은 무섭고 추악하며 이 추함을 뱀과 거대한 구렁이로 상징화 시키며 남성에게 복수를 한다.

또한 《聊齋志異·竇氏》속의 두씨의 딸도 죽음 이후로 이전의 아름답고 순진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먼저 남산복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던 아가씨의 아버지 꿈에 산발로 나타난다. 그리고 만약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면 죽여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과연 그 말대로 행한다.

남산복과 혼약을 맺은 대갓집 주인이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어떤 산발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타나더니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었다. “배신자에게 딸을 시집보내지 마시오. 만약 혼인을 시킨다면 내가 반드시 당신의 딸을 죽이겠소.”³⁵⁾

이후 그녀의 복수 방법은 단번에 행하는 복수가 아닌 점차적으로 강도를 더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준다. 먼저 신부로 하여금 자결하게 하고, 자기의 시신(두씨의 딸)을 신방에 두고, 그리고 다시 훔쳐 온 다른 여인의 시신을 가져와 그에게 죄명을 씌어 죽게 만든다. 남산복으로 하여금 점점 알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공포와 불안으로 정신적 공황에까지 이르게 하는 처절한 고통을 안겨 준다. 마지막으로 남의 무덤을 파헤친 죄명으로 관부의 힘을 빌려 복수를 완성한다. 그리하여 중국 문학사상 가장 음산하고 잔인한 복수를 완성하였다.

일본 《今昔物語集》제14권 3화 〈기이지방(紀伊國) 도성사(道成寺)의 승려가 법화경을 서사공양(書寫供養)하여 뱀을 구제한 이야기〉에서도 자기와의 약속을 어기고 도망 간 승려에 대한 원망과 원한은 그녀를 거대하고 흉측한 뱀으로 변하게 하고 그 깊은 원망은 깊은 강, 굳게 닫힌 문, 큰 종도 막지를 못한다.

큰 뱀이 절까지 쫓아 왔고, 문을 닫아 놓았지만 넘고 들어왔다. 그리고 불당을 한번 돌더니 그 승려를 가두어 둔 종루의 문 앞에 이르러서 꼬리로 백번정도 문을 두들겼다. 마침내 문을 두드리 부수고 뱀이

35) 其大家夢女披髮抱子而告曰：“必勿許負心郎；若許，我必殺之！” 김혜경(역), 《요재지이·두씨》(서울:민음사, 2002).

들어왔다. 그리고 종을 감더니 꼬리로 용두를 두세 시간쯤 두들겼다. (중략) 독사가 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쳐들고 혀를 날름거리면서 원래 왔던 쪽으로 사라졌다. 커다란 종은 뱀이 내뿜은 독의 열기로 타버려서 엄청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도저히 다가갈 수 없었다. 그래서 물을 부어 종을 식힌 다음 치워 보니 종 안의 승려는 완전히 타 없어져 해골조차 보이지 않았고 겨우 재만 남아 있었다.³⁶⁾

거절당한 여성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를 입고 남자에 대한 원망 또한 이에 비례하여 커진다. 이러한 내면적 상처 받은 심리는 육체적 변신으로 연결되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과 동시에 불꽃을 내뿜고 피눈물을 흘리는 무시무시한 독사로 변하게 된다. 깊은 원망과 한은 독의 열기가 되어 종 속의 승려를 새까맣게 태워 재만 남긴다.³⁷⁾

上田秋成(우에다 아키나리) 《雨月物語》(우게쓰 모노가타리)에 수록된 〈吉備津の釜〉(기비쓰의 솥)에서도 남편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한번도 누굴 속여 본 적 없는 착한 이소라가 시부모님을 속이면서까지 남편의 돈을 마련하는 진심과 순정은 남편의 배신에 의하여 철저히 짓밟힌다. 그녀에게 설정된 상황은 진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짓밟힐 정도로 가혹했으며 결국 그녀를 죽음 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한다. 먼저 이소라도 자신들의 불행의 근원인 남편의 바람기를 이용하여 그를 유인해내는 치밀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정부 소데를 발작 증세로 죽여 쇼타로에게 고통을 주고, 또한 그의 치명적 약점 바람기를 이용하여 그를 유인하는 원한의 무시무시함과 복수의 치밀함까지 보여주고 있다.³⁸⁾

“여태까지 저를 모른 채 하고 냉담하게 해주신 데에 대한 보복을 이제 곧 해 드리지요.” 하고 말하기에 쇼타로가 깜짝 놀라서 여주인을 바라보았다. 몹시도 창백한 안색, 조금 치켜 뜬 무시무시한 눈초리, 자신을 가리키는 가늘고 창백하게 여윈 손, 뜻밖에도 여주인은 고향에 버리고 온 아내 이소라였다.³⁹⁾

36) 김종덕외, 《일본문학 속의 여성》(서울:제이앤씨, 2006), 74쪽.

37) 위의 책, 74쪽.

38) 줄고, <고전 문학 속 여성들의 해원으로서의 변이에 관하여>, 《석당논총》 43(2009.3), 138쪽.

39) 이한창, 《우게쓰 이야기》(서울:문학과 지성사, 2008), 124쪽.

그리고 마지막 날 밤 그녀의 원령은 밤이 지났다고 착각한 쇼타로를 문 밖으로 끌어낸다. 이어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듣고 옆집 남자가 달려 나온다.

활짝 열린 문 옆 벽에 묻은 피가 바닥에 뚝뚝 떨어져 흐르며 비린내를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시체나 뼈 따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히코로쿠가 눈을 크게 뜨고 달빛에 의지하여 가만히 살펴보니 처마 끝에 무엇인가가 매달려 있었다. 불빛을 들고 자세히 비추어 보니 쇼타로의 상투만이 처마 끝에 매달려 있을 뿐 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40)

시체도 보이지 않고 벽의 선혈과 천장에 매달린 남자 머리의 상투등의 암시적인 죽음의 묘사로 이소라의 무시무시함과 깊은 원한을 보여주고 있다. ‘상투만이 걸려있다’는 부분으로 상상력은 순식간에 격발되어 무시무시한 복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었다.⁴¹⁾

위의 작품들에서는 복수자가 죽음 후 원령(怨靈)이나 뱀으로 변하는 신이(神異)의 힘으로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처단하는 것이 주된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복수자가 신이(神異)의 힘을 빌어 복수의 대상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함으로써 스스로 과멸하게 하는 간접적 복수를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국 당전기 《霍小玉传》의 껍소옥을 들 수 있다. 그녀는 “원손을 내밀어 이익의 팔을 꼭 부여잡으며, 술잔을 땅에 내 팽개치고는 몇 번인가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는” 연약하고 상처받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이십량의 배신으로 피를 토하며 죽은 껍소옥의 저주는 곧 무시무시한 복수로 이루어져 이십량으로 하여금 환청과 정신착란에 빠뜨려 이후에 처첩들에게 갖은 악행을 일삼는다.

이후로 왕왕 이생은 아내에게 포악하여 매를 때리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지독한 학대를 가했으며, 마침내 어떤 일을 엮어 관청에 고발해 아내를 내쫓아 버렸다. 노씨가 쫓겨 난 후 이생은 시비 잉첩 등과 잠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지만, 문득 시기와 질투를 발휘했고, 경우에 따

40) 위의 책, 128쪽.

41) 김종덕외, 《그로테스크로 읽는 일본 문화》(서울:책세상, 2008), 290쪽.

라는 죽여 버리는 일도 있었다. (중략) 이렇게 이생은 부인을 보기만 하면 문득 시기심이 발동했고 세 번이나 취치를 했지만 모두 처음 경우와 같이 시기하고 질투했다.⁴²⁾

곽소옥의 원령(怨靈)은 이십량으로 하여금 여러 처첩들을 의심하고 학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복수의 방법도 단번에 행하는 복수가 점차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게 하고 불행한 결혼생활을 반복하게 한다.

이 유형의 여성들은 봉건 사회의 도덕적 가치관의 잣대 아래서 순종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본성을 누르다가 죽음 후 초현실세계에서는 이전의 모든 유가적 도덕윤리와 규율의 속박을 일체 무시하고 내재해 있던 인간 본연의 애증(愛憎)으로 인한 질투와 원망의 모습을 순식간에 드러내며 무시무시한 복수를 자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들의 내부에 잠재해 있던 원한은 한 순간에 무시무시하게 변하여 초자연적인 신이(神異)의 힘으로 복수를 감행한다. 여성의 애증(愛憎)이 극한에 이르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파괴적인 힘으로 승화되고, 자신과 타인 모두를 파멸케 하는 무시무시한 복수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⁴³⁾

4. 복수의 파국

(1) 자멸형(自滅型)

고대 여성들이 자살을 선택한 경우는 남편 혹은 약혼자가 사망하거나, 반란자나 강도에 굴복하기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희롱 당하여 모욕감을 느낀 후가 대부분이다. 이는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정조에 대한 요구와 속박에 기인한 결과이다. 여성들이 열녀가 되기 위해서, 순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순결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했고 봉건사회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자살을 미화시켰다. 그러나 복수에

42) “爾後往往暴加捶楚，備諸毒虐，竟訟於公庭而遣之。盧氏既出，生或侍婢媵妾之屬，□同枕席，便加妒忌。或有因而殺之者。……大凡生所見婦人，輒加猜忌，至於三娶，率皆加初焉。” 김중균(편역), 《중국전기소설선》(서울:박이정, 2005).

43) 줄고, <고전문학 속 여성들의 해원으로서의 변이에 관하여>, 《석당논총》 43, (2009.3), 145쪽.

성공한 여성들 중에서도 그 결말을 자결로 마무리 짓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조선후기 《劍女》의 아가씨는 복수를 완성하고 난 뒤 여종에게 유언을 남긴 뒤 자결을 한다. 여종에게는 스스로 좋은 배우자를 찾는 자주적인 삶을 살라고 당차게 당부하지만 정작 자신은 자결한다.

“나는 아들이 아니어서 세상에 살아남더라도 끝내 대를 잇지는 못한다. 더구나 남장으로 8년 동안 천 리를 돌아다녔으니, 몸을 더럽히지는 않았지만 어찌 처녀의 도리라고 하겠느냐. 시집을 가고 싶어도 필시 갈 곳이 없을 터이고, 시집간들 마음에 맞는 장부를 만날 수 있겠느냐. 더구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독자여서 가까운 친척이 거의 없으니, 누가 혼주(婚主)가 되겠느냐. 나는 여기에서 스스로 목을 베어 죽으련다.”⁴⁴⁾

아가씨는 복수의 세월 8년 동안 남장으로 천리를 떠돌아다닌 것에 대하여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 가계를 잇는 것과 양반집 처녀의 도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혼인의 절차를 중시하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치관을 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여성은 집안에서만 순결을 보장 받고 집 밖에서는 보장 받지 못한다는 관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장을 하고 스승을 찾아다니며 복수를 완성하는 과정은 양반집 아가씨로서는 일종의 일탈행위지만 부모의 복수라는 윤리적 동기의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복수 후 자결을 함으로 당시의 봉건 윤리체제로 되돌아간 것이었다.

《聊齋志異·商三官》의 상삼관도 극단에 들어가 남자 배우로 분장하여 원수에게 접근하여 복수를 완성 한 후 자신도 그 자리에서 목을 매어 자살한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을 동정하던 관부에서 그녀의 시신을 오빠들에게 거두게 하며 토호의 집안으로 하여금 다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내린다. 자신의 비극적인 죽음을 대가로 오빠를 비롯한 집안이 다시 보복을 받지 않게 하려는 그녀의 가혹한 희생정신을 엿

44) “吾非吾親之男子，雖生存於世，終非嗣續之重，而男裝八歲，方行千里，縱不污身於人，寧爲處子之道乎？欲嫁必無所售，使得售，何得稱意之丈夫哉？且吾家單子，絕無強近之親，誰爲吾主婚者耶？吾卽自刎而伏於此。” 이우성외(편역), 《이조한문단편집·劍女》(서울:일조각, 1996).

볼 수 있다. 그러나 복수의 전개와는 별 관계없이 그녀의 시신을 범하려는 과수꾼이 갑자기 피를 쏟으며 죽는 장면이 등장해 그녀의 신성함과 정절을 문득 강조하고 있다.

김녀의 아가씨와 상삼관이 비록 효라는 윤리적 복수의 ‘동기’는 인정을 받았으나 복수의 ‘과정’ 중 남장을 하고 떠돌아 다니고 극단에 들어가 남장배우로 희롱에 응하는 과정은 순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녀들을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하고 있다. 효(孝)라는 복수의 의무 외에도 남자와는 달리 동시에 정절과 순결의 보존이라는 또 다른 의무를 지우게 함으로써 복수의 동기 뿐만 아니라 복수의 과정까지도 당시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는 가혹한 남성중심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2) 구도, 해탈형(求道, 解脫型)

고대사회에서 여성이 출가하는 것은 사회와 복수대상에 대한 적극적인 자기표현이었다. 여성의 대표적 미적 기준인 머리카락을 자르고 출가한다는 것은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규범, 즉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름의 적극적인 행위이다. 번뇌로 가득한 ‘속세’를 떠난다는 구도(求道)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남성에 의해 구축된 관능성이 강조된 머리카락을 버린다는 것, 여성성을 버리고 속세의 행복 추구라는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해탈(解脫)의 의미도 담겨있다.⁴⁵⁾

당전기 《謝小娥》의 사소아는 아버지와 남편의 복수를 완성한 후, 고향에 돌아 왔을 때, 많은 호족들이 앞 다투어 그녀에게 청혼을 한다. 그러나 그녀는 절개를 지켜 시집가지 않는다. 후에 머리를 깎고 불가에 입문한다.

“스스로 불도에 입문하여 몸에는 부드러운 비단옷을 입지 않고 부엌에는 맛있는 음식이 없으며 불교의 계율과 참선의 원리가 아니면 입

45) 이미령, <원시물어에 나타난 여성출가의 의미>, 《일본언어문화》14(2009), 401쪽.

에 올리지 않는다. 그 뒤로 내 다시는 소아를 만나지 못했도다.”⁴⁶⁾

그녀가 청혼들을 거절하고 불가에 입문하는 것은 죽은 남편에 대한 절개를 지키는 의미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 여성으로서 누리는 속세의 행복을 포기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일본 御伽草子(오토기조시) 《あきみち》(아키미치)의 무사 아카미치의 아내도 자신의 희생을 담보로 복수를 완성하지만 기쁨보다는 슬픔에 복받쳐 오른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 속의 모든 고뇌가 장문으로 쏟아지고 있다.

“제 자신의 반생이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면, 세상에 저처럼 기막힌 팔자는 없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당신과 처음 만나 다른 사람들처럼 부부로 함께 지내지 못하고 아쉽게 헤어진 일, 또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함께 지내다 아이를 가진 일, 이것도 제 뜻이 아닙니다. 당신의 원수라고는 해도 내 아이의 애비 되는 자를 죽도록 도왔으니 이 팔자가 무서울 따름입니다. 이것을 불도에 입문하는 기회로 삼아서, 사람을 득도하게 이끌어 주는 훌륭한 스님을 만나 내세의 안락을 얻고 싶습니다.”⁴⁷⁾

인간적, 여성으로서의 의지보다는 봉건윤리적인 무사의 아내로서의 의무를 강요받아 정절을 포기하고 원수를 유혹하여 그의 아이까지 가지게 된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결국 아이의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은 복수에 대한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의 만류를 뿌리치고 속세를 떠나 구도를 통한 내세의 안락을 추구하고자 출가한다. 또한 동시에 무사의 아내로서 마땅히 완성해야 할 복수였지만 정절을 버린 점, 자신의 아이의 아버지를 죽게 만든 점 등은 결국 그녀가 다시 행복할 수 없는 나아가 행복해서는 안 되는 당시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이중 잣대를 잘 보여 주고 있다.⁴⁸⁾ 무사의 남편으로 대변되는 봉건사회의 가혹한 윤리성에 희생되

46) “爰自入道，衣無絮帛，齋無鹽酪，非律儀禪理，口無所言，不復再遇。” 김중균 (편역), 《중국전기소설선》(서울:박이정, 2005).

47) 신선향, 《일본문학과 여성》(울산: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113~117쪽.

48) 西村汎子, 〈中世小説に見る女性観:『あきみち』の場合〉, 《白梅学園短

는 운명을 짊어져야 했던 불행한 여인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⁴⁹⁾

(3) 자아실현형(自我實現型)

그러나 복수 후 자결, 출가 등으로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 한 여성들과는 다르게 주체적인 결단에 의해 적극적인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조선의 한문소설 《劍女》에서 아가씨와 함께 주인집의 복수를 완성 후 여종은 아가씨의 유언에 따라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매우 주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너는 나와는 다른 처지(신분)이니 자유롭게 자신의 이상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지 말고 포부와 이상대로 살라” 는 유언을 받들어 자신의 이상에 맞는 배우자를 찾아 다녔다. 그리고 2년 뒤 소옹천의 명성을 듣고, 그를 찾아와 자신을 소개한다.

“선생님의 명성을 들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천한 몸으로 선생님을 모시고자 하오니 허락해 주십시오.” (중략) 그러나 평범한 남자를 섬기면서 일생을 마치고 싶지 않다는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남장을 하고 세상을 돌아다녔지만 경솔히 몸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천하의 걸출한 선비를 택하려고 선생님에게 자청하는 것입니다.”⁵⁰⁾

자신의 이상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 스스로를 추천했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시대의 규범과 관습을 생각해 볼 때, 여성이 남성을 찾아 와서 배우자로 자신을 추천하는 것은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다.⁵¹⁾ 그러나 검녀가 아가씨의 유언을 받들어 “奇士”라고 생각하였던 그는 그녀의 기대에 못 미치

期大学》29(1993), 37~38쪽.

49) 신선향, 《일본문학과 여성》(울산: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114쪽.

50) “竊聞盛名久矣, 欲以薄軀得侍巾櫛, 倘俯許否? ……抑有一段情願, 不欲仰望凡子而終身, 故男服而行世, 不自輕污, 竊擇天下之奇士, 而自薦于座下矣.” 이우성 외(편역), 《이조한문단편집·劍女》(서울:일조각, 1996).

51) 조혜란, <조선의 여협, 劍女>,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2(2006), 279쪽.

는 사람이자 미련없이 떠날 결심을 한다.

“내일 새벽에 떠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절경의 바다와 빈 산에서 노닐 것입니다. 남장은 아직 남아 있으니 표연히 다시 갈아입고 노닐 것입니다. 어찌 다시 여자가 되어 고개를 숙여 음식을 장만하고 바느질을 하는 일에 손을 얹매어 지내겠습니까.”⁵²⁾

유교적 전통아래 부모가 정해 준 남편을 따라 또 그 남편의 무능력과는 상관없이 한평생 그를 따라야하는 남성위주의 사회를 온 몸으로 저항하며 자신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그렇지 못할 경우 과감히 떠나는 그녀의 강한 의지를 잘 보여 준다.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의 일로 여겨져 왔던 가사 일에서 탈피하여 마지막으로 남장을 하고 떠남으로 이 후 남성과 동등하게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바램을 잘 보여주고 있다.⁵³⁾

중국 《聊齋志異·俠女》편의 험녀도 용감하게 자신의 이상에 맞는 배우자를 선택하여 자신이 바라는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 옆집에 사는 顧生이 몇 번의 왕래 이후 그녀에게 청혼을 하자 그녀가 “별써 잠 자리를 같이 하고 집안일을 하면 이게 아내가 아니겠어요?”라며 전통적인 결혼, 가정관을 부인하고 있다. 그녀는 보통 여자들과 달리 결혼과 가정을 자기의 유일한 생활의 방식으로 보지 않고 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면 가정이라는 형식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사상을 볼 수 있다. 또한 험녀는 무능한 顧生에게 보은의 차원으로 아들을 낳아 주고 떠난다. 무예에 뛰어나지만 가난한 생활을 기꺼이 하고, 복수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후사를 이어 돌봐 준 은혜에 보답을 하고, 그로 인해 복수가 삼 년이나 지연됨에도 불구하고 결코 원망이 없었으며, 또한 복수에 성공하여 원수의 머리를 보여주며 아들을 부탁하고 다시 자신이 추구하는 새 삶을 향해 과감히 떠난다.

52) “故明曉辭決，而將遊於絕海空山矣。男裝尙在，飄然更着而遊，寧復爲女子，低眉斂手於飲食縫紉之事乎。” 이우성외(편역), 《이조한문단편집·劍女》(서울:일조각, 1996).

53) 줄고, <조선후기 검녀를 통해 본 한중여협의 세계>, 《석당논총》40(2008. 3), 212쪽.

이들은 복수 과정 중 혹은 복수 후 자신의 이상에 맞는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며 자신이 목표했던 삶의 길을 찾아 나갔다. 결혼, 가정생활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다. 그녀들의 관점에서 볼 때 결혼과 가정은 그녀들의 유일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으며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보다 더 중요한 자아실현(自我實現)의 생활방식이 있다고 굳게 믿고 실천하였다.

5. 나오는 말

이상으로 한중일 고전문학 속에 보이는 여성의 복수를 동기와 전개과정, 그리고 파국적인 결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우선, 삼국의 고전문학속의 여성복수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중일 여성들의 복수의 동기가 남성의 복수동기에 비하여 다소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른다는 점이다. 비록 효(孝)나 열(烈)같은 윤리적 동기가 기저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은 역시 개인적인 차원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남성의 복수가 국가적·사회적인 차원의 대국적인 면을 지닌다는 점과 대조된다. 둘째, 복수의 전개과정에서 복수의 모티브가 윤리적 차원인 경우에는 현실세계에서 보다 구체화된 복수방법이 등장하는 반면, 복수의 모티브가 애증에 기인한 경우에는 주로 원한을 지닌 혼령으로 변하여 환상세계에서 복수가 전개된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가부장체제의 사회에서 남성이 여러 처첩을 거느리거나 여성을 희롱하는 것을 크게 죄악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이 직접적으로 처단하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복수의 방식은 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우회적인 방법 즉 여성이 남성과 다른 한 인격체의 여성으로 행해지는 복수가 아닌 원령, 뱀등의 이물 즉 다른 인격체로서 남성에게 복수를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복수의 결말을 들여다보면, 복수에 성공한 여성들이 선택하는 행로가 다소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아무리 윤리적 동기가 사회에서 칭송된다 하더라도 결국 복수에 성공한 여성, 즉 ‘강한 여성’은 더 이상 기존 사회로 돌아올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긍정적인 형태인 자아실현형에서도 복수에 성공한 여성은 자신이 머물던 근거지를 떠나야 하는 운명을 감수해

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본적인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독자적인 문화적 배경에 따라 여성복수의 이미지는 다르게 표현되기도 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은 유불교이외도 도교의 발달과 전통적인 유협을 숭상하는 분위기로 복수여성의 이미지에 협(俠)이 많이 강조되고 있다. 《聊齋志異》의 협녀는 지금까지 중국의 복수의 여협의 이미지를 대표하고 있다. 둘째, 한국은 복수 시 여성들이 검녀, 강상효녀등이 모두 남장을 하고서야 복수를 한다. 이것은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복수를 하는 것 보다는 남장 후 복수를 완성하는 형태로 복수여성의 이미지를 간접적으로 완화시키고자 하는 작가들의 고민이 담겨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일본은 중국과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절’을 강조하지 않는다. 중국과 일본의 여성들이 복수 후 그녀들이 훼손될 위기에 하늘이 돕는다는 식으로 하는 설정이 나타나거나 심지어 한국의 검녀처럼 복수 과정 중 남장을 하고 떠돌아다닌 것조차도 정결치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자결하는 모습을 일본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본은 심지어 복수를 위해서 유녀로 변장하여 원수와 동거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그리고 복수 후에도 남편이 훼손한 아내를 다시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는 중국과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절이 강조되지 않고 성에 대해서 다소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동아시아 삼국의 고전문학 속에 등장하는 여성의 복수이미지는 다소 부정적이지만 사회가 칭송하는 윤리적 모티브를 출구로 하여 강한 여성이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으로써 남존여비로 억눌린 여성억압의 구조가 복수의 무대에서 해소되는 일종의 카타르시스의 장(場)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참고문헌]

- 김명구·윤애선, <복수의 전환과 다원화>, 《중국어문논총》35, 2007.
 김부식, 장창은(역), 《三國史記》, 서울: 지식의 만드는 지식, 2009.
 김선화, <일본중세문학에 그려진 여성의 실연과 출가>, 《일어일문학연구》62, 2007.

- 김종균(편역), 《중국전기소설선》, 서울: 박이정, 2005.
- 김종덕외, 《일본문학 속의 여성》, 서울: 제이앤씨, 2006.
- 김종덕외, 《그로테스크로 읽는 일본 문화》, 서울: 책세상, 2008.
- 김혜경, 「요재지이의 가정윤리」, 《중국소설논총》6, 1997.
- 김혜경(역), 《요재지이》, 서울: 민음사, 2002.
- 나관중, 연변대학번역조(역), 《삼국지》, 중국: 연변대학출판사, 1990.
- 량서우쥬, 《강호를 건너 무협의 숲을 거닐다》, 서울: 김영사, 2004.
- 성 현, 《용재총화》, 서울: 솔출판사, 1997.
- 성해웅, 《研經齋全集》, 서울: 한국문집총간, 2007.
- 손혜리, <성해웅의 글쓰기 양상과 그 의미>, 《한문학보》15, 2007.
- 신선향, 《일본문학과 여성》, 울산: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 이경미, <조선후기 검녀를 통해 본 한중 여협의 세계>, 《석당논총》40, 2008.3.
- 이경미, <고전문학 속 여성들의 해원으로서의 변이에 관하여>, 《석당논총》43, 2009.3.
- 이미령, <원시물어에 나타난 여성출가의 의미>, 《일본언어문화》14, 2009.
- 이우성 외(편역), 《이조한문단편집·劍女》, 서울: 일조각, 1996.
- 이원걸, <잡기고담에 반영된 임매의 여성관>, 《한문학보》14, 우리한문학회, 2006.
- 이인경, 《열녀설화의 재해석》, 서울: 월인출판사, 2006.
- 이한창, 《우게쓰 이야기》,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8.
- 정명기(편), 《雜記古談》3話, 《韓國野談資料集成》卷12, 서울: 계명출판사, 1987.
- 조혜란, <조선의 여협, 劍女>,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06.
- 편집부 편, 《한국역사 속의 여성인물》,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1998.
- 馬瑞芳, 《揭秘聊齋志異》, 北京: 東方出版社, 2006.
- 安国梁, 《聊齋釋真》,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3.
- 嚴紹璽、中西進主編, 《中日交流史大系·文學卷》,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96.
- 河合集雄 著, 范作申 译 《日本人的传说和心灵》, 北京: 三联书店, 2007.

(清) 蒲松齡, 張友鶴校, 《聊齋志異》, 上海: 古籍出版社, 1978.

松田修, <上田丘成の世界>, 《日本の古典》17, 東京: 集英社, 1990.

西村汎子, <中世小説に見る女性観: 『あきみち』の場合>, 《日本白梅学園短期大学》29, 1993.

西沢正二 (編著), 《名篇御伽草子》, 東京: 笠間書店, 1978.

中村幸彦, 《日本古典文学大系56・上田秋成集》, 東京: 岩波書店, 1959.

<中文提要>

本论文主要以韩中日古典文学作品中出现的女性的复仇心理为主题, 分析了韩中日古典文化中女性决心复仇的动机、复仇的实施和方法, 以及复仇后的结果。我们发现, 三个国家古典文学中女性复仇的行为有以下共同点。第一, 韩中日女性的复仇动机与男性不同, 多少会停留在个人的立场。第二, 在复仇的展开过程中, 如复仇的动机都有伦理方面的背景, 就在现实世界中以具体的复仇方法出现, 但复仇的动机以爱憎为起因, 就因为心怀怨恨而变为冤魂, 在虚幻世界中实施报复。第三, 复仇成功的女性, 结局多少都会有一些悲剧色彩。即使怀有伦理方面的动机, 在社会上被广为称颂, 这些复仇成功的女性们, 即‘强大的女性’, 再也不能回到原来的世界了。在这些作品中, 我们可以看到这种限制性。

但是, 因三个国家文化背景的不同, 也存在一些差异性。第一, 中国除了佛教以外, 在道教高度发展和传统的崇尚儒侠思想的大环境下, 复仇的女性多被赋予侠女的形象。第二, 在韩国, 复仇的女性(剑女, 江上孝女等)实行复仇时必定会换上男装。换上男装后完成复仇的行为, 间接地弱化了复仇女性的形象。第三, 不同于中国和韩国, 日本相对来说并不强调‘贞节’。

结果, 基本上否定了在东亚三个国家的古典文学中出现的所有‘复仇女’的形象。但是, 以社会认同的伦理动机为出口, 给强势女性的出现留下了余地。女性因男尊女卑而被压抑, 这种压抑女性的社会构造在复仇的背景下成为一种可以倾诉的感情净化之地。

关键词: 韩中日 古代文学 比较文学 女性 复仇

204 · 中國學 第38輯 (2011.4)

투 고 일 : 2011.2.28
심 사 일 : 2011.3.10~4.10
게재확정일 : 2011.4.20